
네팔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도법사 수원 스님에게 내소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국 향수 달래는 산사 템플스테이

부안 내소사, 5월 13~14일 네팔 노동자 초청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전북 완주 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5월 13~14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부처님의 고향인 네팔출신 노동자 30여명이 동참했다.

이번 내소사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네팔출신 노동자들은 예불, 전나무 숲길 걷기명상, 나만의 108염주 만들기, 다도, 관음전 참배 등 한국의 전통불교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스님과의 대화시간에는 네팔의 부처님오신날 풍습 등 한국과 네팔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부처님을 찬탄하는 네팔의 찬불가를 합창하며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랬다. 새벽 예불 후에는 전나무 숲길에서 걷기명상을 하며 한국의 산사에서 맞이하는 새벽을 만끽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신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을 지도한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수원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처님의 고향인 네팔출신이라 더 반갑다"며 "네팔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불교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완주 산업단지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람 마니(32) 씨는 "새벽 예불 후 전나무 향기가 가득한 전나무 숲길에서의 명상은 환상적이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방 의무 노고에 감사를…"

호국 의상암, 군 장병 위문법회 봉행



공군 8351부대 호국 의상암(지도법사 여산)이 부대 장병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위문법회를 봉행했다.〈사진〉

5월 10일 부대 내 관사 앞마당에서 열린 위문법회는 박용수 대대장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들과 내소사 템플스테이 담당 수원 스님, 장병 및 가족,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문법회를 주관한 여산 법사는 부대 장병과 주민들을 위해 음료, 식사와 함께 푸짐한 바비큐 파티를 제공했으며 근무로 참석하지 못한 장병들에게는 피자 등의 간식을 전달했다.

식사 후에는 신유민 탑 밸리댄스팀과 아리랑 문화예술단 등이 출연해 밸리댄스, 노래, 각설이품바 공연을 펼쳐 장병들을 즐겁게 했다. 또 여산 법사는 깜짝 색소폰 연주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다양한 장기를 가진 장병들이 출연해 노래와 춤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행사 중간에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여산 법사는 "모처럼만에 장병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모두 함께 건강하게 군 생활에 임하고 준비한 음식을 먹고 흥겨운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군 호국 의상암은 의상, 원효 스님 등이 수행했던 변산의 부사의방이 있는 곳으로 한동안 방치됐던 법당을 여산 법사의 원력으로 최근 복원했다. 현재 부안 내소사와 여산 법사가 격주로 법회를 봉행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맑은 물, 아이들에게 감로수 되길"

전북 마하연승가회, 베트남 초교 급수시설 준공

"부처님의 감로수를 어린이들에게 나눔으로써 사랑과 용서로 행복을 전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이곳에 흐른다."

–마하연–

전북지역 스님들이 베트남 초등학교에 부처님의 감로수를 전했다.

승가의 단합과 사회 대중을 위한 봉사단체인 전북 태고종 마하연승가회(회장 승천, 정읍 일광사 주지)는 5월 15일 베트남 호치민시 탄 텅호이 초등학교(교장 웬방썬)를 방문해 한국산 정수기 설치를 완료하고 식수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식수대 준공식에는 회장 승천 스님을 비롯해 김제 용봉사 법전 스님, 김제 쌍용사 정수 스님, 익산 대인사 지오 스님,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 익산 관음사 정수 스님, 천안 도광사 도공 스님,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 대전 금강사 동언 스님, 마하연원주보살회, 정읍 일광사 신도들과 호치민 정부관료, 교육부 관료, 영험사 부주지 스님, 학생 및 학부모 600여명이 참석해 식수대 준공을 축하했다.

지난해에도 이곳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한 바 있는 마하연승가회는 어린 학생들이 오염된 식수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보고, 식수대 건립 지원 협약을 맺어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

승천 스님은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수교 이후 양국 간 많은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에도 결혼이주여성과 근로자 등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호 아름다운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월 15일 탄 텅호이 학교서
한국산 정수기 · 식수대 마련
지하 80m 암반수 끌어올려
오염된 식수 문제 해결해

스님은 또 "베트남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감로수와 같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웬방썬 교장은 "한국 태고종 마하연승가회에서 이번에 설치한 정수기를 통해 마음껏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한다"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를 위해 헌신하도록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마하연승가회 스님들과 베트남 스님이 새로 설치된 식수대에서 맑은물을 받아 시음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하연승가회

마하연승가회의 해외복지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베트남 식수대 건립사업은 탄 텅호이 초등학교가 1호다. 식수대와 정수기 설치 총 공사비는 미화 8,811달러가 소요됐으며, 지하 80m에서 퍼 올린 암반수를 한국산 정수기로 정수한 후 냉각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하연승가회는 준공 후에도 연 5회 정도 정수기 필터와 연수기 필터 교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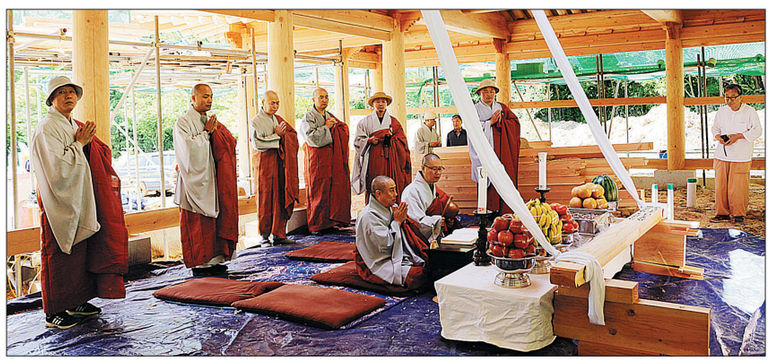
그간 마하연승가회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이 3차례에 걸쳐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했고, 베트남 현지 '불모를 만드는 사람들' 산하 불교예술원연구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현지 조사, 정수기 시장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날 준공식이 마련됐다.

마하연승가회는 과거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마음과 베트남산 안남미를 국제구호로 원조 받았던 인연을 되새겨 민간 교류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감로수를 전하는 것으로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아 정수기와 식수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학 어우러진 템플스테이 '성큼'

고창 선운사 5월 15일 문학템플스테이관 상량


문학템플스테이관 상량에 앞서 스님들이 의식을 올리는 모습.

고창 선운사가 (구)자연의 집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중 숙소동인 선휴당을 상량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5월 15일 주지 경우 스님, 한주 범여 스님, 초기불전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총무 심학 스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학템플스테이 체험관 '선휴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상량식을 가진 문학템플스테이관은 대지 1,450평(4,785㎡)에 조성되는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3동 중 2번째 건물이며 전통한옥 형식에 건평 132㎡ 규모다. 선운사는 회의실과 주요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대방 60평(198㎡) 건물 1동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다. 문학템플스테이관이 완공되면 템플스테이 활성화는 물론 기도객 증가로 인한 방사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선운사는 전망하고 있다.

문학템플스테이 체험관은 완공 이후 한국불교 문화체험과, 불교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또 근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석전 박한영 스님의 재가제자 서정주, 조지훈, 신석정 등 당대의 시인들과 관련한 문학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윤 5월을 앞두고 생전업장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로써 내생의 복락을 추구하는 정유년 생전예수재 입재식을 봉행했다.

5월 7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한주 재곤 스님, 범여 스님, 고창노인복지관장 대원 스님,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승가대 학인스님과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재곤 스님은 법어를 통해 "49일간의 기도를 통해 생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참회로 소멸하고 내생에 무량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동원사 영유아 어린이 수계

영유아 어린이들이 계를 받아 새싹 불자로 거듭나는 기회를 가졌다.

광주 동원사(주지 지장)는 5월 13일 대웅전에서 '제4회 영유아 어린이 수계산림 대법회'를 봉행했다.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불교의 인연을 심어주고자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계아사리 지각 스님을 비롯해 일명 스님(신광사 주지), 지장 스님이 법사로 나섰다. 이 자리서 스님들은 영유아 30여 명에게 계를 내리고, 함께 참여한 가족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지장 스님은 "어린 불자들이 이제 계(戒)를 받았으니 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앞으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수계 법사단 등단에 이어 삼보사찰 청정수 합수, 관정의식, 수계증 증여, 연비, 단주 수여, 기념사진 촬영, 아이들 축원, 탑돌이 등이 이어졌다. 행사 후 참여 가족들은 사찰음식을 즐기고 스님들과의 대화마당서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보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5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